

戒壇形 僧塔 研究

-계단형 승탑의 出現과 再現-

여이숙*

- I. 머리말
- II. 계단형 승탑의 기원과 조성배경
- III. 계단형 승탑의 양식 고찰
- IV. 계단형 승탑의 미술사적 의의
- V. 맺음말

I. 머리말

계단형 승탑은 기존에 ‘石鐘形 浮屠’라 일컬어진 명칭을 새롭게 명명한 용어로서, 이러한 형식을 지닌 구조물의 조성배경이 단순히 사리를 봉안한 ‘탑’이 아니라, 불사리를 모시고 수계의식을 행하는 ‘계단’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새롭게 명명한 것이다.¹

붓다란 ‘覺者’란 의미이므로, 승려가 ‘깨달음’을 얻는다면 붓다의 지위를 성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깨달은 승려’의 사리는 언제나 부처의 사리와 동일시 될 수 있는 선종사상적인 기초가 마련된다. 본고의 논지는 여기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탑은 삼국시대 불교전래 이후 불탑은 方形重層의 형식이, 그리고 승탑은

* 경례문화유산연구원 유물관리팀장

¹ 佛, 塔, 浮屠는 語源上 같은 개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高裕燮, 『韓國 塔婆의 研究』, 『高裕燮 全集』1 (通文館, 1992), p. 139), 선종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승탑 조성이 지닌 본래의 의미를 되새긴다면 승탑을 부도라 함은 타당한 표현이라 생각되나, 부도가 어원상 지닌 복합성은 본고의 논지 전개상 용어의 사용에 따른 혼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승려의 사리를 안치한 조형물’은 ‘승탑’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본문 중 지정명칭, 참고문헌, 비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석종형 부도’ 또는 ‘석종’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八角圓堂形이 많이 조성되었으며 그 전형을 이루어 왔다. 그런데 高麗 末 이들과 형식을 달리한 戒壇形 僧塔이 출현하니 提納薄陀尊者 指空(?~1361), 普濟尊者 懶翁惠勤(1320~1376), 圓證國師 太古普愚(1301~1382)의 탑이 그것이다.²

이 글은 통일신라이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주류로서 조성되는 승탑형과 달리 불교사상적 의의가 중요한 佛舍利를 모신 조형물인 戒壇의 형식이 고려 말이라는 특정시기 분사리의 원리와 맞물려 승탑에 출현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탑과 계단이 ‘舍利奉安處’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것에 착안하여 먼저, 계단의 도상적 연원을 밝힐 수 있는 『關中創立戒壇圖經』³의 텍스트를 인용하여 계단의 기원과 상징성에 대한 도상적 해석을 시도하였고,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승탑에 있어 ‘계단의 구조’ 및 ‘분사리’의 원리와 혼합되어 나타난 고려 말 나옹과 태고의 계단형탑 출현을 가능하게 한 조성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최초의 계단형 승탑인 신륵사 보제존자탑의 양식을 고찰하여 계단형 승탑의 기원은 복발형탑이 아닌 계단에 그 기원을 두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또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와 Ⅱ장 조성배경의 내용에 입각하여 사나사 원증국사탑 또한 계단의 단을 갖춘 계단형탑이었을 것이라는 原形에 대한 추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려 말 이후 단절되었던 계단형 승탑이 조선후기에 들어와 고려 말과 같은 맥락으로 재현되는 현상을 해인사 사명당탑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불교사상과 계단, 그리고 탑의 유기적 상관관계 속에서 계단형 승탑이 갖는 불교미술사적 의의를 재조명하는데 본고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Ⅱ. 계단형 승탑의 기원과 조성배경

1. 계단형 승탑의 기원과 상징성

계단은 수계의식을 행하는 신성한 장소이다. 계단은 또한 사리를 봉안하는 舍利塔으

² 본문에서는 간단히 지공, 나옹, 태고라는 호를 사용하였다. Ⅲ장에서는 지공의 탑은 문헌상으로도만 존재하므로 제외시켰고, 현존하는 나옹과 태고의 탑만 다루었다. 나옹 탑의 지정명칭은 神勒寺 普濟尊者石鐘(보물228호)이나, 우리나라에 석종형 탑신을 지닌 모든 탑의 지정명칭에 ‘석종’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과 사용되지 않은 것이 혼재해 있고, 또 ‘석종’이라는 표현이 논지 전개상 초래할 탑형의 혼돈을 피하고자 보제존자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³ 唐나라 道宣이 乾封 2年(667) 2월에 雍州 長安縣 清官鄉 淨業寺에 계단을 건립하고서 계단의 구조와 형태를 논술한 것이다. 이하 『戒壇圖經』으로 약칭하겠음. 『계단도경』번역은 김수인과 필자에 의한 것임.

로서 탑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계단과 탑은 차이를 보인다. 계단은 불사리에 한해서만 조성되는 반면, 탑은 佛과 僧 사리에 적용되어 각각 佛塔과 僧塔으로 조성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고에서 다룬 계단형 승탑은 계단과 탑의 어떠한 상관관계 속에서 성립된 것일까? 승려의 탑을 조성함에 있어 일반 승탑형이 아닌 불사리를 모신 계단의 형식을 본뜨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 우선 계단의 기원 및 상징성을 살펴봄으로써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고자 한다.

불교 초기 계단의 형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계단의 도상적 연원을 밝힐 수 있는 도선(596-667)의 『계단도경』에 의하면 계단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이제 계단의 최초는 하늘이 만들었다. 하늘의 솜씨는 기묘하니, 이치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지만, 부처님께서 지휘하신 것이므로 더욱 비범한 법도가 있다. 고로 그 모양도 世俗과 같지 않다. 別傳에 의거해서 말하자면, 계단은 땅으로부터 세우는데 세 겹으로 한다. 三空을 표현한 것이니, 佛法에 입문하는 첫관문으로 삼는다. …계석천이 단상에 覆釜를 얹어, 이로써 사리를 덮는다. 또 대법천왕이 북부 위에 無價寶珠를 두니, 사리를 공양하기 위한 것이다. …계단은 모두 5중으로, 이는 五分法身을 표현한 것이다.⁴

최초의 계단은 “부처님이 祇樹園(祇洹, 기원정사)에 계실 때, 누자비구가 부처님께 단을 세워 계를 주실 것을 청하자, 부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고, 처음으로 세 개의 단을 세웠다”고 한데서 시작되었다.⁵ 즉, 계단은 석가 재세시, 수계를 행하던 장소로서 이미 단의 형태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방형 중층의 단에 복발형의 탑신을 갖춘 5중 구조의 계단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자, 가섭존자가 경전을 결집하면서 戒壇 위에 올랐다. …가섭이 이때 의심가는 3800문을 던지니 아난이 날날이 답했다. 이제 계단에 관한 물음만을 간추리고 나머지는 제외했다. 대가섭이 묻기를…”

⁴ 『大正新修大藏經』第四十五卷, No. 1892, 『關中創立戒壇圖經』, pp. 808 下 - 809 上. “今之戒壇初爲天造 天工巧妙 理出人謀 然佛指揮 又非凡度 故其相狀不同恒俗 依別傳云 戒壇從地而起 三重爲相 以表三空 爲入佛法初門… 其後天帝釋又加覆釜形於壇上 以覆舍利 大梵王又以無價寶珠 置覆釜形上 供養舍利 是則五重 還表五分法身.”

⁵ 『大正新修大藏經』第四十五卷, No. 1892, 『關中創立戒壇圖經』, p. 807 下. “檢別傳云 佛在祇樹園中 樓至比丘請佛立壇 結成受戒故 爾時如來依言許已 創置三壇 …”

계단의 높이와 넓이는 얼마나 되는가?
 계단 위 중앙에 사리를 안치해야 하는가?
 계단의 네 면에는 어떤 물건을 놓아야 하는가?
 사면에 階段은 얼마나 해야 하는가?
 단을 두른 사면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야 하는가?
 돌이 없는 나라는 흙이나 모래로 해도 되는가?...”⁶

위의 내용은 기존의 단에, 부처 열반 후 부처의 사리를 안치하기 위해 계단이 갖추어야 될 형태에 관한 물음으로 계단은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갖춘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계단도경』에서 사리를 덮은 覆釜가 금산사 방등계단의 구룡반상이 있는 종형탑신(도 2 참고)⁷이나 통도사 금강계단의 종형탑신⁸처럼, 계단에서 鐘의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이 주목된다.

“처음 기원[祇桓]정사 계단의 북쪽에 鐘臺가 있었는데…위에 金鐘이 있고…아래에는 九龍盤像이 있는데 용의 입에서 팔공덕수를 토했다. 처음 戒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계단에 와서 용이 토하는 물로 灌頂 했다…戒를 받는 사람이 淸淨함을 포함이다. 聖人들께서 계를 받을 때는 得通菩薩들이 鐘을 쳐서 三千世界에 소리를 울린다. 범부들이 戒를 받을 때는 마지비구를 시켜 鐘을 치게 함으로써 소리가 소천세계에 울린다...”⁹

즉, 종이라는 것은 계단에서 수계의식이 행해질 때 위와 같은 기능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단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늘 단과 함께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불가에 있어 계단이라는 것은 단순히 묘탑의 개념인 복발형탑이 아니라, 부처 재세시에는 수계 설법의식을 행하는 단으로서, 또 부처 열반 후에는 불사리를 모신 사리탑으로서의 양면적

6 『大正新修大藏經』第四十五卷, No. 1892, 『關中創立戒壇圖經』, pp. 807 下 - 808 中, “案別傳云 佛涅槃後 迦葉結集 來戒壇上 … 迦葉爾時作三千八百問 諸有疑事 阿難一一答之 今略取戒壇一問餘者闕之 大迦葉問…戒壇高下闊狹依何肘量 戒壇上中安舍利不 戒壇四面用何物 四面開階方別多少 繞壇四面作何形像 無石國中土沙作不 …”

7 『계단도경』에서 말한 ‘금종과 구룡반상’의 형태를 형식화한 것이라 생각된다(주 9 참고).

8 “...금강계단 석종부도 위 여의주석 구룡반석 아래...”라고 한 것으로 보아(“...其金剛壇 浮屠石鐘上 如意珠石九龍盤石下...”[‘舍利靈異’, 『通度寺舍利袈裟事蹟略錄』(退隱敬一 編, 『通度寺誌』(아세아문화사, 1977), p. 16)), 통도사 계단에도 한 때는 구룡반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9 『大正新修大藏經』第四十五卷, No. 1892, 『關中創立戒壇圖經』, pp. 808 上 - 中, “初祇桓戒壇北有鐘臺…上有金鐘…下有九龍盤像 龍口吐八功德水 時欲受人至壇所 龍使吐水灌頂 如轉輪王陞壇受位灌頂之相…又表受人戒珠淸淨 若諸聖人受戒之時 得通菩薩擊鐘 聲震三千世界…凡夫受時 使摩抵比丘擊之 聲聞小千世界…”



도 1 통도사 금강계단, 조선시대 중건, 總高 3.10m, 1단 幅 9.80m, 석중 高 0.98m, 경남 양산 통도사



도 2 금산사 방등계단, 고려, 總高 4.24m, 1단 幅 12.5m, 석중 高 1.20m, 전북 김제 금산사

기능을 하는 조형물임과 동시에, 수계의식을 통한 불법의 계승이라는 상징성을 지닌 조형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양면적 기능과 상징성을 지닌 계단에서의 사리탑은 계단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중의 기능과 상징성을 형식화하여 중형탑신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¹⁰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계단은 신라시대 慈藏律師가 창건한 通度寺 金剛戒壇(도 1)¹¹과 眞表律師가 중창한 것으로 전해지는 金山寺의 方等戒壇(도 2), 그리고 개성 근교에 있는 고려시대 佛日寺址 戒壇¹²과 조선시대 龍淵寺 戒壇, 安心寺 戒壇이 있다. 계단은 모두 방형 중층의 단과 탑신대석, 중형탑신, 보주를 갖춘 5층의 구조로 『계단도경』에서의 계단의 형태와 같다. 또한 이러한 계단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석중형 부도’라 불리던 계단형탑과도 상통하는 구조로, 다시 말해, 계단형 승탑 또한 계단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하겠다.

¹⁰ 우리나라에서 기록상 예로부터 계단과 계단형 사리탑을 일컬어 ‘石鐘’이라 표현하였던 것 또한 이러한 初造戒壇의 작법과 관련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李穡 撰, 『驪興郡 神勒寺 普濟舍利石鐘記』, 『高麗國 平壤道 延山府 妙香山 安心寺 石鐘之碑』; 鄭道傳 撰, 『圓證國師石鐘銘』; 『東師列傳』卷2 敬聖大德傳; 『東師列傳』卷2 碧松禪師傳).

¹¹ 통도사 계단은 643년 초창 이래 여러 차례 중창을 거듭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형태를 초창시의 원형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초창 및 중수기록을 보면 현재도 초창시의 형태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三國遺事』第三卷, 塔像 第四, 前後所藏舍利條. “...壇有二級 上級之中 安石蓋如覆鉢”; 李穡, 『梁州通度寺釋迦如來舍利記』, “...築金剛戒壇 周回四面 皆四十尺 其中以石函置之...一函則安三舍利四枚 一函則安齒牙二寸許一枚 一函則安頂骨指節長廣或三寸或二寸許數十片...以蓋石覆之 四面上下三級七星分坐 四方四隅八部列立 上方蓮石 以鐘石冠之”(李能和, 『朝鮮佛教通史』下篇(民族苑, 1918), p. 1018). 통도사 계단의 초창 및 중수 기록, 구조와 형태, 『계단도경』과의 비교는 退隱敬一 編, 『金剛戒壇重修記』, 『通度寺事蹟略錄』(『通度寺誌』, 亞細亞文化社, 1979); 『三國遺事』; 張忠植, 『韓國 石造戒壇考』, 『佛教美術』4(동국대 박물관, 1979) p. 118; 呂易淑, 『高麗時代 戒壇形 僧塔 研究』(高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7), pp. 53~63 참고.

¹² 『高麗史』卷2, 世家 第2, 光宗 辛亥二年條 “...辛亥二年...創佛日寺于東郊 爲先妣 劉氏願堂...”

2. 계단형 승탑의 조성배경

1) 계단형 승탑의 조성원리

불가에서 계단은 사리를 모신 불사리탑으로, 또, 수계의식을 행하는 계단으로서의 양면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계단은 불사리에 한해서만 조성될 수 있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우리나라에 불사리가 최초로 전래된 것은 진흥왕 태칭3년 기사(549)에 梁나라에서 沈湖를 시켜 사리 몇 알을 보낸 것이다.¹³ 불사리에 의한 최초의 건탑은 선덕왕 정관17년 계묘(643)에 慈藏이 唐에서 가져온 佛頭骨, 佛牙 및 사리 100립을 三分하여 황룡사 탑, 통도사 계단, 태화사 탑에 안치 하였다고 하니¹⁴,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불사리의 분사리에 의한 최초의 建塔과 建戒壇인 것이다.

이후 이러한 분사리에 의한 건탑은 8세기 禪宗이 크게 유행하게 되면서 탑 조성이 확산되게 된다. 그런데 9세기에 이르러 六祖 慧能(638~713)의 법을 이은 西堂 智藏(735~814)의 선법을 전수받은 道義禪師(생몰년 미상)가 唐에서 신라 헌덕왕 13년(821) 귀국한 이래 선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¹⁵ 불교 내에서의 사상적 전환을 가져옴과 동시에 불교미술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인 조형물이 출현하게 되는데, 바로 승탑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¹⁶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승탑은 선종의 開山祖인 도의선사탑에서 시작하여 이후 각 禪門 개산조들과 고승들의 탑으로서 모두 一人一塔으로 조성되었고, 그 형식도 지광국사 현묘탑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팔각원당형의 탑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런데 고려 말 나옹, 지공, 태고의 탑이 분사리에 의한 一人多塔의 경향으로 변화하면서 각각 ‘불탑형’, ‘승탑형’, ‘계단형’ 탑으로 만들어짐으로써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조탑 성향을 띠게 되는 것이다(표 1).

¹³ 『三國遺事』第三卷, 塔像 第四, 前後所藏舍利條. “眞興王大淸三年己巳 梁使沈湖送舍利若干粒”

¹⁴ 『三國遺事』第三卷, 塔像 第四, 前後所藏舍利條. “善德王代貞觀十七年癸卯 慈藏法師所藏佛頭骨 佛牙 佛舍利百粒 佛所著緋羅金點袈裟一領 其舍利分爲三 一分在皇龍塔 一分在太和塔 一分並袈裟在通度寺戒壇 其餘未詳所在”

¹⁵ 『禪源流派皆自曹溪』(李能和 編, 『朝鮮佛教通史』下, pp. 7-9); 道業, 「太古普愚의 禪思想과 佛教史의 位置」, 『太古普愚國師의 生涯와 行蹟』(中央僧伽大學校 佛教史學研究所, 2002), p. 60.

¹⁶ 7세기 중엽 백제의 惠現(생몰년 미상), 신라의 惠宿(생몰년 미상)과 圓光(555-638)의 승탑에 관한 기록(『三國遺事』第5卷 避隱 第8 惠現求靜條 “道俗敬之 藏于石塔 俗齡五十八 卽貞觀之初”; 第4卷 意解 第5 二惠同塵條 “今安康縣之北 有寺名惠宿 乃其所居云 亦有浮屠焉”; 第4卷 意解 第5 圓光西學條 “年八十餘 卒於貞觀間 浮屠在三岐山金谷寺 今安康之西南洞也 亦明活之西也”)이 있으나, 탑은 현존하지 않는다.

표 1 分舍利에 의한 建塔과 塔形

| 僧名 | 建塔寺刹 | 塔形 | 建塔時期 | 비고 |
|----|------|-----------|----------|---|
| 懶翁 | 檜巖寺 | 팔각원당형 | 1376 | 현존 (李穡撰, 「禪覺王師之碑」) |
| | 神勒寺 | 계단형 | 1376 | 현존 (李穡撰, 「驪興郡 神勒寺 普濟舍利石鐘記」; 「禪覺王師之碑」) |
| | 華藏寺 | 라마탑형 | 1376년 이후 | 현존. 나옹의 탑으로 추정 |
| | 安心寺 | 계단형 | 1384 | 부전. 신록사의 것과 같은 形制의 탑(李穡撰, 「高麗國 平壤道 延山府 妙香山 安心寺 石鐘之碑」) |
| | 令傳寺 | 쌍탑식 (불)탑형 | 1388 | 현존 |
| | 正陽寺 | ? | ? | 부전. 「金剛山正陽寺三韓懶翁銘淨屠銘」에 의한 것임. 부도명은 題額만 남아 있어 탑형은 알 수 없음 |
| 指空 | 檜巖寺 | 팔각원당형 | 1372 | 현존 |
| | 華藏寺 | 라마탑형 | 1370년 이후 | 현존. 탑신에 「指空定慧靈照之塔」선각 |
| | 安心寺 | 계단형 | ? | 부전. 신록사의 것과 같은 形制의 탑. (李穡撰, 「高麗國 平壤道 延山府 妙香山 安心寺 石鐘之碑」) |
| 太古 | 太古寺 | 팔각원당형 | 1383 | 현존 (李穡撰, 「楊州太古寺圓證國師塔銘」) |
| | 舍那寺 | 계단형 | 1383 | 현존 (鄭道傳撰, 「圓證國師石鐘銘」) |
| | 加恩陽山 | 계단형 | 1383 | 現 鳳巖寺. 현존 석종형탑을 태고의 탑으로 추정 |
| | 靑松寺 | 계단형 | 1383 | 溟州郡 청송사. 태고의 석종이 있었다고 전함 (李智冠 교감역주, 『歷代高僧碑文』高麗篇4(伽山佛教文化 研究院, 2000), p.465 주80) |
| | 小雪庵 | (불)탑형 | 1383 | 부전. (李穡撰, 「楊州太古寺圓證國師塔銘」; 『新增東國輿地勝覽』卷8, 楊根郡 佛宇條) |

이전까지 이러한 분사리에 의한 건탑은 모두 불사리에 한한 것으로, 자장이 통도사에 우리나라 최초의 계단을 설치하면서 분사리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었다. 통도사는 戒律을 그 근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자장이 통도사에 수계의식을 통한 佛法의 傳承을 의미하는 계단을 설치함으로써 통도사를 우리나라 戒律의 根本道場으로 삼아 僧團의 질서를 체계화

하고 불법을 확산하고자 했던 종교적·시대적 배경을 보이는 곳이다.¹⁷

그러므로 이러한 배경을 지닌 통도사 계단의 조성 원리가 고려 말이라는 시기, 승려나옹, 지공, 태고의 탑을 조성함에 있어 ‘계단형탑’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탑형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은 통도사 창건이 지닌 종교적·시대적 배경을 상기해 볼 때 실로 그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2. 계단형 승탑 주인공의 불교사적 위상

승사리의 분사리에 의한 계단형 승탑의 출현, 그 새로운 변화는 바로 불교사상의 변화, 즉, 나옹과 태고에 의해 도입된 臨濟(?-866)禪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임제선이란 六祖 慧能(638-713)의 선법을 계승한 臨濟宗派의 사상으로, 혜능은 선종의 근본사상을 규정한 『六祖壇經』¹⁸에 “識心見性하게 되면 스스로 부처의 道를 이룬다.”¹⁹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見性이 곧 成佛임을 천명한 ‘見性成佛’을 宗旨로 하는 선종사상인 것이다.

라마탑형 사리구 안 5개의 소탑 속에 각각 부처인 정광여래 사리 2매, 가섭여래 사리 2매, 석가여래의 사리 5매와 승려인 지공 사리 5매, 나옹 사리 5매를 넣어 함께 봉안한 보스톤미술관 소장 ‘은제 라마탑형 사리구(도 3)’를 통해 나타내고자 한 것 또한 같은 맥락의 것으로 해석 된다. 불교의 법맥을 1조 가섭불로 보았을 때, 지공은 서천국 108조, 菩提達磨(?~528)는 28조가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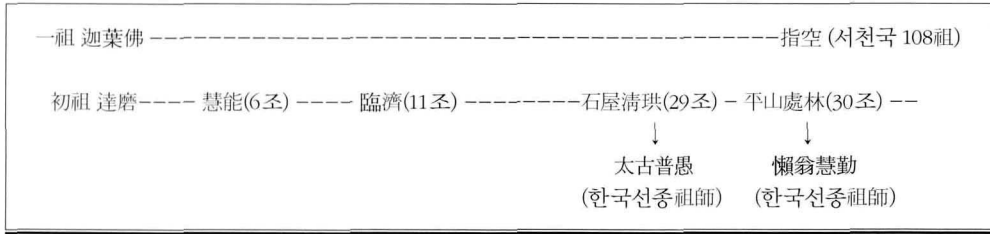
도 3 라마탑형 사리구, 고려, 보스톤미술관 소장
(사진제공:문화재제자리찾기)

¹⁷ 韓國佛敎研究院, 『通度寺』(一志社, 1999), pp. 24-28.

¹⁸ 『육조단경』은 육조의 법문을 전한 유일한 자료로서 선종의 근본이 되는 聖典이다((性徹 譯, 『敦煌本 壇經』(藏經閣, 1982), p. 17).

¹⁹ “...菩薩戒經云 我本源自性清淨 識心見性 自性佛道 卽時豁然 還得本心”(性徹 譯, 『敦煌本 壇經』(藏經閣, 1982), p. 173).

표 2 指空·懶翁·太古의 法系圖



는데, 이것을 중국 선종 법계도로 나타내면, 보리달마는 곧 중국 선종의 初祖가 된다.

보리달마에 의해 시작된 중국 선종은 6조 혜능에 이르러 비로소 선종의 정통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러한 혜능의 선사상이 11조 임제를 거쳐, 29조 石屋清珙(1272~1352), 30조 平山處林(1279~1361)에 이르러 각각 태고와 나옹에게 전법되게 된다. 이로써 나옹과 태고를 조사로 하는 한국 선종의 법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표 2).²⁰

법맥은 『六祖壇經』에서의 ‘自性戒’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계를 수계한 자는 불제자가 아닌 ‘법을 계승한 法王子’의 지위를 얻음으로써成佛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혜능의 선맥을 계승한 임제종 선사들로부터 직접 법을 인가받은 나옹과 태고는 곧佛格으로 격상되어질 수 있는 사상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나옹과 태고는 고려 말 공민왕대 유일한 왕사와 국사로, 이들은 활동시기 뿐만 아니라 수학과정에서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철저히 대립된 존재로 서로 다른 계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승려 사이에 적지 않은 사상적 차이가 존재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중국 임제종 스승의 차이에서 비롯되

²⁰ 불교의 법맥은 『佛祖宗派之圖』를 참고하였다. 『佛祖宗派之圖』는 無學自超(1327-1405)가 조사의 계보가 없음을 심히 부끄럽게 여겨서 당시 지공과 나옹을 잇는 한국불교의 법맥을 세웠던 것으로, 平山處林까지의 계보를 신고 나옹혜근을 그 아래에 붙여 실음으로써 自超가 법맥을 계승한 것으로 정리한 것이다. 自超가 법맥을 확정하였다는 것은 采永이 지은 『海東佛祖源流』 발문에도 찾아지는 내용이다(황인규, 『無學自超의 興法活動과 檜巖寺』, 『삼대화상 연구 논문집』Ⅱ (佛泉, 1999), p. 306 ; p.306 주 80; 주 81 참고). 『佛祖宗派之圖』는 현재 전하지 않고 있으나, 조선후기 月渚道安이 自超가 지은 『불조종파지도』를 증보하여 간행된 것이 전하고 있다. 月渚道安은 石屋清珙 이하의 계보를 첨가시켰고 自超의 계보를 보완하여 太古普愚와 대비시켜 태고보우의 법맥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韓國禪宗法系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황인규, 앞의 논문, p. 306 주 82참조).

²¹ 元에 유학하여 임제종 스승의 系脈을 이었다는 것과 국내에서 檜巖寺와의 인연이 그것이며, 지공 또한 회암사와는 깊은 인연이 있다(李穡 撰, 『禪覺王師之碑』; 金守溫, 『檜巖寺重創記』, 『拭堊集』卷2; 李穡, 『天寶山檜巖寺修造記』, 『牧隱文集』; 李穡 撰, 『圓證國師塔銘』참고). 한편, 나옹의 출가에 관해서는 충혜왕 복위 5년(1344) 檜巖寺 了然禪師에게서 출가하였다는 『懶翁行狀』기록(覺宏, 『懶翁行狀』, 『懶翁和尚語錄』, 『韓國佛教全書』 6과 了然禪師를 은사로 功德山 大乘寺 妙寂庵에서 출가하였다는 『禪覺王師之碑』의 기록(李穡, 『檜巖寺先覺王師碑』, 『朝鮮金石總覽』上)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었다기보다, 바로 지공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인도 승 지공의 법명은 提納薄陀로, 那蘭陀寺에서 출가하여 普明尊者에게서 득도를 인가 받았다. 보명의 당부에 따라 東方에의 教化를 위해 티벳을 거쳐 원나라로 왔었고 다시 고려에 이르게 된 것이다.²²

그가 중국에 도착했을 때는 달마로부터 전래된 선이 중국적으로 바뀌어 중국의 독특한 선풍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한 점이 지공이 중국 내의 僧團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원인이 되었을 것이며, 계율을 중시한 그의 禪이 보여주는 순수하고 신선한 면이 새로운 활로를 찾던 고려의 선사들에게 더욱 다가갔던 것으로 보여 진다.²³ 지공이 고려를 방문한 기간은 1326년 3월부터 1328년 9월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가 당시 불교계에 끼친 영향은 상당하였다. 당시 지공은 부처의 현세출이라 불릴 정도로 숭앙받았고, 한국불교에서 지공의 위치는 보리달마의 위치에 상당하는 것이었다.²⁴

지공은 1328년 통도사를 방문하여 계단에서 자장이 전래한 석가의 가사와 사리를 참견하고 법회를 열었는데,²⁵ 계율을 중시한 선승으로 인도 승이었던 지공은 누구보다 戒壇이 지닌 상징성과 의의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지공이 수계의식을 통한 불법의 전승을 상징하는 조형물인 통도사 계단에서 법회를 연 것은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며, 또한 통도사 계단은 더욱 더 신앙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부각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공은 스스로를 “流派別傳”이라 하여 迦葉佛의 108대 후계자라 칭하며²⁶, 중국의 선맥인 달마와는 다른 계보임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²⁷ 지공은 계율사상에 투철하여 無生戒를 토대로 삼은 실천적인 선승으로, 지공의 『文殊舍利菩薩最上乘無生戒經』²⁸의 언급에 보이는 “無生戒를 말미암지 않고는 부처를 이룰 수 없다.”²⁹는 인식은 불교적 사유체계를 보

22 김상현, 「指空의 影頌과 遺蹟」, 『삼대화상 연구 논문집』Ⅱ (佛泉, 1999), pp. 37-38.

23 김치은, 「지공화상의 교학사상」, 『삼대화상 연구 논문집』Ⅱ (佛泉, 1999), pp. 11-12.

24 閔請, 『禪要錄序』 (김상현, 위의 논문, p. 38 재인용); 祁慶富, 정하영 역, 「西僧 指空禪師와 彝族」, 『삼대화상 연구 논문집』Ⅱ (佛泉, 1999), p. 146.

25 「西天指空和尚爲舍利袈裟戒壇法會記」, 『通度寺事蹟略錄』 (『通度寺誌』 (亞細亞文化史, 1977), pp. 30-48).

26 지공의 법맥은 李穡, 「禪覺王師之碑」; 「西天國提納薄陀尊者浮圖銘并序」; 指空, 『禪要錄』 참고.

27 許興植, 『高麗로 옮긴 印度의 등불』 (一潮閣, 1997), p. 19.

28 『文殊舍利菩薩最上乘無生戒經』은 지공의 유일하고도 대표적인 漢譯경전으로 고려에서 번역한 것이다. 현재 통도사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29 『文殊舍利菩薩最上乘無生戒經』 “夫無生成者建千聖之地生萬善之基...一切衆生不受此戒法者欲成佛道無有是處是故昆盧遮那親宣 文殊菩薩傳授諸佛由茲成道...此戒法者本來無一無凡無聖亦無善無惡苦有比丘比丘尼優婆塞優婆夷似此行者皆得受持...” 원문의 전문은 許興植, 『高麗로 옮긴 印度의 등불』 (一潮閣, 1997), pp. 331-348 <부록 1> 참고할 것.

여준다.

따라서 無生成를 전수한 禪僧은 부처의 지위에 이른 자를 뜻하고, 지공으로부터 『懶翁戒牒』을 전수받고³⁰ 이후 법을 인가받은 나옹은 곧 부처를 이을 법왕자의 지위에 올랐다는 종교적 성취를 이룬 것(성불)으로 간주되었다. 즉, 나옹은 중국의 선맥 외에, 서천국의 선맥까지 이어받게 되는 것이다(표 2 참고).

선종(조계종)은 신라말·고려초 고승을 系譜化하려는 노력이 이 시기에 이르러 결실을 맺게 되는데,³¹ 『佛祖宗派之圖』에서 알 수 있듯, 나옹과 태고의 門徒를 중심으로 계보를 정리할 정도로 불교계의 두 봉우리 같은 존재였으나³² 철저한 대립관계였던 나옹과 태고는 그러한 선종 계보화의 노력에 의해 宗祖로서 내세워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불교에서의 종조란 인맥의 계승이 확인된 법통의 조사를 의미하므로 법통을 밝히지 않고서는 누구를 종조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法系譜 즉, 法統이라는 것은 종조로부터 현재까지의 계승을 의미하므로 불교계의 정통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³³

즉, “깨달은 승려는 부처와 다름없다(見性成佛)”는 선종사상과 ‘不立文字·直指人心’에 의한 禪脈을 계승한 승려를 불력으로 숭앙할 수 있다는 사상은 불교계의 정통을 내세우려는 문도들에 의해 고려 말 지공과 더불어 생불로 여겨졌던 나옹과 태고에 있어 ‘계단형탑’이 출현하게 되는 연원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30 나옹계첩은 묘덕계첩과 더불어 현존하는 지공의 두 가지 계첩 중 하나로, 『文殊舍利菩薩最上乘無生成經』의 내용을 요약하여 만든 것이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功德山人, 『懶翁王師의 菩薩戒牒을 보고』, 『佛敎』 5(1924). 계첩의 끝에 나옹이 지공으로부터 계첩을 받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 泰定 4年(1327) 2월에 지공이 제자 懶翁惠勤에게 수계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계첩의 다음에 지공으로부터 나옹의 傳法圖가 金泥線畫로 그려져 있고, 다음에 나옹의 自題와 願文이 실리고 끝에 金泥로 쓴 梵書 4장을 붙이고 “梵書 一幅”이라 쓰여 있다. 이때 나옹은 8세였고, 20세에 출가하였으므로 출가하지 않은 어린이에게 출가자의 號와 法名을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으나(岡教濠, 『朝鮮華藏寺의 梵萊와 印度指空三藏』, 『宗教研究』 3-5 (佛敎社(佛敎), 1927). 현존하는 두 가지 지공의 계첩은 지공이 고려에 왔던 1326-1328년에 고려의 史部大衆에게 수계하였다는 고려사의 기록(『高麗史』卷35, 忠肅王 15年 7月 庚寅)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許興植, 앞의 책(1997), pp.79~89).

31 許興植, 『禪宗의 繼承과 所屬寺院』, 『高麗佛敎史研究』(一潮閣, 1986), pp. 238~247 참고.

32 황인규, 『고려말·조선전기 불교계와 고승 연구』(혜안, 2005), p. 290.

33 許興植, 앞의 책(1997), pp. 246~270 참고. 대한불교조계종은 크게 『懶翁法統設』과 『太古法統設』로 나누어진다. 선종 법통은 한국 선종 연구에 있어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이기도 하나 아직까지 많은 의문점을 내포하고 있고 또, 방법론상으로도 사료의 검토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각 각의 법통설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논외로 하였다.

Ⅲ. 계단형 승탑의 양식 고찰

1. 神勒寺 普濟尊者塔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신록사에 소재한 나옹의 계단형탑인 보제존자탑은 高麗 禰王 2년(1376), 탑비는 우왕(1374-1388) 5년(1379)에 세워졌다(도 4).

보제존자탑의 가장 큰 특징은 기단부에 구축된 높은 단이다. 기단은 지면보다 약간 높게 土壇을 마련한 후, 그 위로 남·북면에 6매, 동·서면에 4매의 장대석으로 테두리를 돌리고 안쪽에는 정방형에 가까운 판석을 깔아 초층 단을 만들고, 그 위로 장방형의 석재로 대석, 면석, 갑석의 구성으로 높은 2층 단을 쌓아 단은 모두 정방형 2층 기단이다(표 3).

「대당서역구법고승전」에 인도 나란타사 계단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나란타사의



도 4 신록사 보제존자탑, 1376년, 高 1.94m, 경기도 여주군 신록사

표 3 신록사 보제존자탑 기단부 수치

단위 : cm

| 구분 | 높이 | 넓이(北面×西面) |
|----|----|-----------|
| 1단 | 5 | 788×800 |
| 2단 | 70 | 400×400 |



도 5 용연사 석조계단, 1613년, 總高 약 2m, 1단 폭 약 5.70m, 2단 폭 약 5m, 대구 달성 용연사

계단은 土壇 위에 한 번 大尺一丈, 높이가 2尺으로 벽돌을 쌓고, 그 단 내에 5寸 높이의 坐基를 만들고, 그 중앙에 작은 制底가 있다...³⁴고 하니, 보제존자탑과 유사한 구조와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크기의 계단은 비록 조선후기 작이기는 하나, 통도사 계단의 불사리를 분사리하여 축조한 용연사 석조계단(1613)³⁵에서도 볼 수 있다(도 5).

보제존자탑의 단은 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자른 석재를 고르게 쌓아 높은 단을 구축하고 상·하면 테두리는 장대석을 돌려 마무리하였다. 단의 윗면은 1단과 마찬가지로 돌을 깔아 편평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축단법식은 우리나라의 계단에 보이는 기법과 동일하며, "...단의 예법은 서로 상접하니, 아래는 섬돌을 포개어 쌓아 2중이다..."³⁶, 또, "...단 위에 돌을 깔아 땅처럼 편평하게 하였다."³⁷고 한 『계단도경』의 축단법식과도 동일하다.

또한, 단에는 3개의 階段이 정면과 좌·우측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계단도경』에서 "계단에서 계를 받는 자가 오르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그 장애를 없애기 위해 계단에 階段을 설치하였다"³⁸는 계단의 설명에 부합되는 것으로, 수계시에 등단하여 득계³⁹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34 義淨三藏, 『大唐西域求法高僧傳』 卷上, "...其次西畔有戒壇 方大尺一丈餘 卽於平地周 壘埴壇子 高二尺 許許 壇內坐基可高五寸 中有小制底..."

35 『龍淵寺釋迦如來浮屠碑』 (朝鮮總督府 編, 『朝鮮金石總覽』 下 (亞細亞文化社, 1978), pp. 948-949)

36 『大正新修大藏經』 第四十五卷, No. 1892, 『關中創立戒壇圖經』 戒壇立名顯號第三, pp. 808 下 - 809 上, "...又述烏仗那國東石戒壇之事 此則東西雖遠 壇禮相接矣 其壇相狀 下之二重以石砌累"

37 『大正新修大藏經』 第四十五卷, No. 1892, 『關中創立戒壇圖經』 戒壇立名顯號第三, pp. 808 下, "...其壇上鋪石爲地..."

38 『大正新修大藏經』 第四十五卷, No. 1892, 『關中創立戒壇圖經』, p. 808 下 "每有受戒之候 西南角別安高座 使比丘登之 登或艱阻 時人梵王於南面西階道西 化作鐵莖銀龍銀蓮華 開合轉關華葉相接 對鉤欄上 共高座相當 令使登者而無躓礙"

39 『大正新修大藏經』 第四十五卷, No. 1892, 『關中創立戒壇圖經』 戒壇高下廣狹第四, p. 812 下, "...令受戒者登壇上而受也..."

탑신 대석은 2층으로 초층은 장대석 4매를 돌려 정방형으로 마련하였고 그 중앙에 정방형 판석 1매를 놓아 2층 대석을 마련한 후, 중앙에 탑신을 따라 1단으로 몰딩하였다.

탑신은 鐘形으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수평을 이루고 탑신에는 아무런 조식이 없다. 탑신 윗면 중앙에는 보주를 받치기 위한 1단이 마련되었고 그 위로 계단에서의 무가보주에 해당하는 보주가 올려져 있다. 종형 탑신은 금산사 방등계단의 것보다는 다소 풍만하고 안정된 형태로, 통도사 계단 석중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으나, 통도사 계단은 여러 차례 중수를 거듭하였으므로, 지금의 형태를 초조계단의 형태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통도사 계단의 초창 시 상황을 나타낸 『삼국유사』의 기록과⁴⁰ 비교하였을 때, 「양주통도사석가여래사리기」에 의하면 통도사 계단은 제1중수가 이루어진 1379년까지는 초창시의 원형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⁴¹ 1376년 승탑에 있어 최초의 계단형탑인 보제존자탑을 만들에 있어, 통도사 계단의 형태를 모본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제존자의 탑은 중층의 단과 종형 탑신, 무가보주를 갖춘 5층의 구조로 계단의 구조와 동일하고, 기단부의 구축방법, 단면에 階段을 설치한 점 등 계단형 승탑 중 계단의 형태와 가장 유사하다. 하지만 계단의 기본인 1층 단의 약화와 단면에 있어서의 불·보살상 등의 생략은⁴² 보제존자탑이 계단이 아닌 계단의 형식을 본 뜬 계단형탑으로 조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요소라 하겠다(도 1·2 참고).

2. 舍那寺 圓證國師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사나사에 소재한 태고의 계단형탑인 원증국사탑은 고려 우왕 9년(1383)에 만들어 졌고(도 6), 탑비는 우왕 12년(1386)에 세워졌다.

탑은 4구의 석재를 결구한 정방형의 낮은 지대석 위에, 1매의 정방형 판석을 깔아 탑신대석을 마련하였고, 대석사면에는 2개의 탕주를 세워 각 면 모두 3분되었다. 대석상면 탑신과 접하는 부분에는 복판연화문이, 그리고 네 모퉁이에는 화문과 운문이 돌출새김되어 있다. 탑신은 종형이고 종형탑신 윗부분에 1단의 낮은 보주받침과 화염문이 조각된

⁴⁰ 『三國遺事』 第三卷, 塔像 第四, 前後所藏舍利條. “善德王代貞觀十七年癸卯…壇有二級 上級之中 安石蓋如覆鉢”

⁴¹ 본고 주 11 참고.

⁴² 예로부터 인도에서 계단은 스투파와 사리탑으로서의 개념과 형태상의 유사함으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있어 혼동을 가져 왔기 때문에 스투파와의 구분을 위해 계단의 기단부에 특별한 표시를 하고 사방에 神衆의 형상과 명호를 표시하여 단의 하층을 계단의 기본으로 삼았다(『大正新修大藏經』第四十五卷, No. 1892, 『關中創立戒壇圖經』, pp. 808 下 - 810 中 ; 여이숙, 앞의 글, pp. 21~23 참고)고 한다.



도6 사나사 원증국사탑, 1383년, 高1.7m, 경기도 양평군 사나사

보주가 있다.

現狀에서의 원증국사탑은 계단형탑이 아닌 석종형 부도의 형식으로, 단순화된 구조 특히, 높은 건축단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제존자탑과는 상당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표 4).

태고는 고려 말 나옹과 더불어 불적으로 숭앙받았을 뿐 만 아니라, 통도사 계단에서 실행되었던 분사리에 의한 다탑건립이 이루어 졌던 승려이다.⁴³ 그리고 이 모두는 계단의 형식을 빌어 나옹과 태고의 법으로 하여금 선종의 法系를 잇고자한 불교도들의 조형관이 깃들어진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법계의 전승을 상징하는 계단 단이 생략된 현재의 사나사 원증국사석종을

표 4 신륵사 보제존자탑과 사나사 원증국사탑의 조형 양식

| 구분 | 구성 | 형태 | 치석상태 | 장식 |
|--------------|------------|---|---------------------------|---------------------------|
| 神勒寺 普濟尊者塔 | 기단 (2단) | 正方形 건축단을 臺石, 面石, 甲石의 구성으로 쌓고 상면에 판석 깔음. 정면과 양측면에 階段 설치. | 장방형 면석과 정방형 판석 모두 치석상태 양호 | 無紋 |
| | 대석 | 정방형 2단 대석 | | |
| | 탑신 | 鐘形(무계중심을 아래에 둔 안정감 있는 종형) | 치석상태 양호 | 無紋 |
| | 보주 | 입체적인 火焰形(탑신과 一石) | | 火焰紋 조각 |
| 舍那寺 圓證國師塔 | 기단 | 없음 | | |
| | 대석 | 正方形 2단 대석(1단은 현 시대석)과 蓮花대석(연화대석은 상단 대석과 一石) | | 대석 4隅에 雲文과 花文 조각 |
| | 탑신 | 鐘形(무계중심을 중간에 두고 위아래의 폭이 비슷한 불안정한 타원형) | 치석상태 불량 표면이 거칠. | 범종의 천판에 해당되는 부분에 複瓣蓮花紋 조각 |
| | 보주 | 소략한 火焰形(탑신과 一石) | | 火焰紋 조각 |

⁴³ 본고 II장 참고.

태고의 탑으로 보기에는 강한 의문이 든다.

그런데 여기서 태고의 탑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되는 석조물이 있다. 바로 석종 앞에 세워져 있는 삼층석탑이 그것이다.⁴⁴ 이 삼층석탑을 받치고 있는 기단부가 바로, 계단의 단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다(도 7·8).

기단은 치석된 석재들을 쌓아 만든 높은 정방형의 단으로, 이 단은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조사하여, 『대정5년조선 고적조사보고』에 수록한 사진에는 없었던 것으로(도 9), 탑의 현재 위치가 원 위치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나사는 여러 차례 전란으로 인해 몇 차례 완전 소실되고 중창되는 寺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⁴⁵ 아마도 이전 시기, 이러한 특이한



도 7 사나사 삼층석탑, 고려, 高 2.8m(축단제의, 축단 高 0.7m), 경기도 양평군 사나사



도 8 사나사 삼층석탑 기단부



도 9 사나사 三重石塔(『大正5年朝鮮古蹟調査報告』)

⁴⁴ 탑의 지명명칭은 경기도문화재자료 제21호 ‘양평 용천리 삼층석탑’이나, 원증국사탑과 함께 사나사 경내에 있는 탑으로 본문에서 두 건조물의 비교를 위해 사나사 삼층석탑으로 칭하였음을 밝혀둔다.

⁴⁵ 『舍那寺』·『舍那寺重建上樑文』, 『奉恩本末寺誌』(勸相老 編, 『韓國寺刹全書』上(동국대학교출판부, 1978), pp. 590-591; 『京畿道佛蹟資料集』(경기도박물관, 1999), pp. 751-755; 道業, 『太古普愚의 禪思想과 佛敎史의 位置』, 『太古普愚國師의 生涯와 行蹟』(中央僧伽大學校 佛敎史學研究所, 2002), pp. 18-19 참고.

형태의 기단에 어떠한 조형물이 있었던 것을 착안하여 이러한 결합의 석조물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표 5는 사나사 원증국사석종, 신륵사 보제존자탑, 사나사 삼층석탑의 단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삼층석탑의 기단이 신륵사 보제존자탑의 기단부 형태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크기 또한 비슷한데, 이를 도면으로 정리하면 (도 10)과 같다.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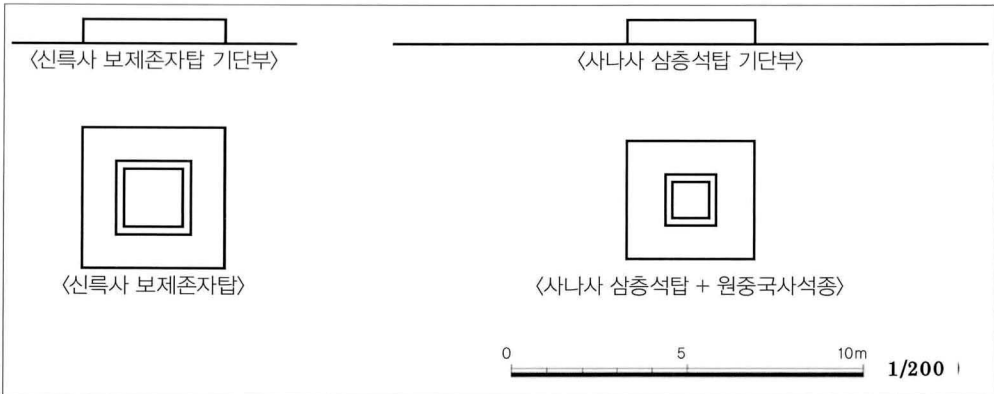
즉, 삼층석탑의 기단부에 현재 사나사 원증국사의 석종을 올렸을 경우, 기단부의 형태가 계단형탑인 보제존자탑의 기단부와 크기와 형태에 있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삼층석탑의 기단이 원래는 석탑의 기단이 아니라는 점, 현재의 사나사에서 옛 원형을 찾기가 힘들다는 점, 그리고 석탑의 기단이 보제존자탑의 기단부와 유사한 크기와 형태라는 점은 원증국사석종과 삼층석탑의 기단부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5 사나사 원증국사석종·신륵사 보제존자탑·사나사 삼층석탑 기단 및 대석 수치

단위 : cm

| 구분 | 사나사 원증국사석종 높이/넓이(北×西)/직경 | 신륵사 보제존자탑 높이/넓이(北×西) | 사나사 삼층석탑 높이/넓이(東×南) |
|----|------------------------------------|-------------------------|------------------------|
| 기단 | 2/140×140(현 지대석) (높이는 지면 위 수치임) | 下壇 5/788×804 | 70/365×340 |
| | | 上壇 70/400×400 | |
| 대석 | 下石 22/108×108 | 下石 20/210×210 | 下石 15/200×200 |
| | 上石 15//78 | 上石 18/170×170 | 上石 10/160×160 |



도 10 신륵사 보제존자탑 및 사나사 삼층석탑+원증국사석종(원증국사탑 추정 원형) 기단부 평면도

⁴⁶ 실측과 도면은 필자 작성.



도 11 사나사 원증국사석종비(1386)



도 12 신륵사 보제존자탑비(1379)



도 13 신륵사 대장각기비(1383)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또 다른 근거로 원증국사탑비의 형태를 들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 신라시대 이래 일반화된 탑비의 형태는 1매의 판석으로만 이루어진 형태인데, 사나사 원증국사탑비(1386)는 자연암반으로 된 지대석을 파서 탑신을 끼워 세우고, 비신 양옆에 돌기둥을 세워 비신을 감싸고 있는 특이한 형태이다(도 11). 이러한 형태의 탑비는 바로, 신륵사 ‘普濟尊者石鐘碑(1379, 도 12)’와 ‘大藏閣記碑(1383, 도 13)⁴⁷에서 찾아지는 결구수법인 것이다. 즉, 1386년 원증국사석종비를 세움에 있어 신륵사에 소재한 2개의 탑비를 모방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사나사에 원증국사의 탑을 조성함에 있어서도 신륵사 보제존자 계단형탑의 形制를 따랐을 가능성과도 결부시켜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사나사 원증국사석종 또한 그 원형은 신륵사 보제존자의 계단형탑처럼, 석재를 쌓아 만든 계단 단 위에, 중형탑신이 올려진 ‘계단형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海印寺 四溟堂塔

해인사 사명당탑은 보현사 서산대사탑과 더불어 현존하는 조선시대 最古의 계단형 승탑 중 하나로,⁴⁸ 『慈通弘濟尊者四溟大師石藏碑』에 의하면, 탑은 1610년, 탑비는 1612년 건립

⁴⁷ 大藏閣記碑는 현재 파손이 심하여 立碑年代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대체로 洪武 16년(우왕 9년, 1383)으로 추정되고 있다(韓國佛教研究院, 『神勒寺』(一志社, 1997), pp. 80-83; 李浩官, 『石碑』, 『韓國의 美』15(중앙일보사, 1981), p. 237; 李浩官, 『石碑의 발생과 樣式變遷』, 『韓國의 美』15(중앙일보사, 1981), pp. 183-192).

⁴⁸ 조선시대 계단형 승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출현의 시기이다. 그러므로 계단형 승탑의 재현을 살필 때 있어서는 재현시기의 계단형탑 중 북한 소재를 제외하고 실물비교가 가능한 해인사 弘濟庵 소재 사명당 유정의 탑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도 14 해인사 사명당탑, 1610년, 高 1.86(단부 제외), 1단
幅 약 9m, 2단 幅 약 4m,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
면 해인사



도 15 보현사 서산대사탑, 조선 후기, 크기 미상, 평안
북도 향산군 향암리 보현사

표 6 해인사 사명당탑·신록사 보제존자탑·사나사 원증국사석종+삼층석탑 기단부 수치

단위 : cm

| 구분 | 海印寺 四溟堂塔 높이(南西×北東)/직경 | 神勒寺 普濟尊者塔 높이/높이(北×西) | 舍那寺 圓證國師石鐘 높이/높이(北×西)/직경 舍那寺 三層石塔基壇 높이/높이(東×南) |
|----|--------------------------|-------------------------|---|
| 기단 | 1단 880×760 | 1단 5/788×804 | |
| | 2단 390×388 | 2단 70/400×400 | 70/365×340 |
| 대석 | 방형대석 165×170 | 下石 20/210×210 | 2/140×140(현 석종지대석) |
| | 원형대석 /157 | 上石 18/170×170 | 下石 22/108×108 上石 15//78 |

되었다(도 14).

사명당탑은 축대를 쌓아 구축한 평지 위에 넓은 방형 2중의 기단을 두르고, 일석으로 된 정방형과 원형의 탑신 대석, 그 위로 석종형의 탑신, 둥근 연봉형 보주를 갖춘 5중의 구조로, 이는 묘향산 보현사에 소재한 서산대사의 탑(도 15)과도 상통하는 구조이다.

사명당탑의 기단부 수치는 보제존자탑과 추정 원증국사탑(사나사 원증국사석종+사나사 삼층석탑)의 수치와 비슷한데,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6)과 같다. 이러한 크기와 형태는 후대의 사례이기도 하나, 안심사 계단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후대 비록 계단형 승탑의 단이 간략화·형식화의 양상을 보이더라도, 단부를 구획하여 계단이 지닌 2중 방형의 단을 나타내려 했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표 7, 도 16·17).

이후 계단형 승탑은 기단부의 생략 또는 간략화, 형식화되는 양상으로 변화하면서 조선 후기 이후 크게 유행하게 된다.



도 16 해인사 사명당탑, 1610년, 1단 880×760cm, 2단 390×388cm,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



도 17安心寺 戒壇, 1759년, 1단 990×현존 392cm, 2단 380×380cm,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안심사

표 7 해인사 사명당탑·안심사 계단 기단부 수치

단위 : cm

| 구분 | 해인사 사명당탑 (南西面×北東面) | 안심사 계단 (西面×南面) | 비고 |
|----|-----------------------|-------------------|---|
| 1단 | 880 × 760 | 990 × 현존392 | |
| 2단 | 390 × 388 | 380 × 380 | 사명당탑 南西面은 돌출된 석재로 430cm 이나, 北東面 단의 길이와 일직선상에 접하 는 부분을 실측한 수치임 |

IV. 계단형 승탑의 미술사적 의의

계단형 승탑은 고려 말이라는 특정시기, 특정 승려에 한해 조성되었다가, 이후 조선후기 1600년대 초에 재현된다(표 8).

고려시대 계단형 승탑의 출현은 “깨달은 승려는 부처와 다름없다(見性成佛)”는 선종 사상과 ‘不立文字·直指人心’에 의한 禪脈을 계승한 승려를 불격으로 숭앙할 수 있다는 사상이 새로운 형태의 미술사적 변용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고려 말, 지공, 나옹, 태고에 있어 분사리의 원리에 의해 ‘계단형탑’으로 출현하게 된 것임을 살펴보았다. 즉, 나옹

표 8 계단형 승탑의 출현·재현 시기 및 승탑 주

| 신라 | 고려 말(출현) | 조선후기(재현)~ |
|--------|---|--|
| 통도사 계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남박타존자 지공 · 보계존자 나옹혜근 · 원증국사 태고보우 | 四溟堂 惟政(1544-1610) 西山大師 淸虛休靜(1520-1604) ~ |

과 태고의 탑이 계단형탑인 것은 '수계를 통한 법맥의 계승'을 뜻하는 계단을 본 뜬 계단형 탑을 만듦으로써 고려 말 혼란한 불교계의 상황 속에서 선불교의 부흥과 나옹과 태고라는 두 승려의 법맥을 통해 한국불교사에서의 정통성을 주장하고자한 조형의도가 물리적인 실체로 드러난 것이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1600년대 계단형 승탑이 재현된 원인은 무엇이였을까? 조선후기 계단형 승탑이 조성되는 승려는 서산대사 청허휴정, 사명당 유정, 부휴선수 등으로 이들은 모두 고려시대 계단형 승탑과 마찬가지로 분사리의 원리에 의해 일인다탑의 경향으로 탑형 또한 서산대사 청허휴정처럼 계단형, 팔각원당형의 탑 등으로 조성되었다(표 9·10).⁴⁹

조선 후기 1600년대의 불교계는 종단의 존립과 부흥을 위해서 새로운 혁신이 필요했던 시기로, 서산대사가 불교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함으로써, 조선시대 불교계과의 통일과

표 9 조선시대 분사리에 의한 건탑

| 僧名 | 建塔 寺刹 |
|----------------------|-----------------------|
| 西山大師 淸虛休靜(1520-1604) | 대흥사, 금강산 백화암, 묘향산 보현사 |
| 四溟堂 惟政(1544-1610) | 보현사, 안심사, 해인사 |
| 浮休善修(1533-1615) | 송광사, 해인사, 칠불사, 백장암 |
| 孤閑熙彦(1561-1647) | 팔공산, 가야산, 속리산 |
| 碧巖覺性(1575-1660) | 화엄사, 송광사, 해인사, 범주사 |

표 10 서산대사 청허휴정 분사리에 의한 건탑

| | | |
|---|---|--|
|  |  |  |
| 묘향산 보현사 - 계단형 | 금강산 백화암 - 팔각원당형 | 해남 대흥사 - 팔각원당형 |

⁴⁹ 표는 강우방, 『불사리장엄』(국립중앙박물관, 1991); 소재구, 「부도」, 『북한문화재해설집 1』(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박창호, 「조선시대 석종형부도 연구」(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이장한, 「해남 대흥사 석조부도군 고찰」(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에 나온 내용을 종합하여 1600년대 계단형 승탑의 승탑주를 위주로 작성한 것임.

선종의 계보가 확립된다.⁵⁰ 이로써 비로소 한국 선종의 祖脈과 法統이 세워졌다. 이 시기, 서산이 확립한 한국선종의 법통이 바로 임제의 正脈을 강조한 임제법통설로⁵¹, 바로 이 법통(법계)에서 조선시대 계단형 승탑주의 승명이 찾아지는 것이다(표 11).

태고의 경우 이미, 고려 말 계단형탑이 만들어 졌고, 조선시대 벽송지엄⁵²과 경성일선⁵³의 경우, 기록상에 계단형탑이 찾아진다. 그리고 조선시대 현존하는 최초의 계단형 승탑이 서산대사 청허휴정에게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후 임제법통설은 청허휴정의 문도들에 의해 임제의 정맥이 고려 태고를 거쳐 조선으로 이어져 왔다는 법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태고법통설로 바뀌면서⁵⁴ 태고의 법통을 계승한 승려들에게서 계단형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즉, 조선시대 계단형 승탑 또한 고려 말 계단형 승탑의 조성배경과 마찬가지로 종단의 부흥과 전승을 위해 태고의 법으로 하여금 한국선종의 계맥을 잇고자한 불교계의 의지가 표출된 조형물이라 하겠다. 한편, 이 시기 불사리의 분사리에 의한 용연사 석조계단(1613)과, 봉인사 세존사리탑(1620, 도 18)⁵⁵의 조성은, 그 탑형에 있어 각각 계단과, 팔각원당형탑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불사리도 승사리와 마찬가지로 팔각원당형탑이 만들어질 수 있음

표 11 臨濟法系圖

(前略) 石屋清珙 - 太古普愚 - 幻庵混修 - 龜谷覺雲 - 正心登階 - 碧松智嚴
- 芙蓉靈觀 - 敬聖一禪 - 清虛休靜 (後略)

50 金煥泰, 『朝鮮 禪家の 法統考』, 『佛教學報』(東國大學校 佛教文化研究院, 1985), p. 12; 崔柄憲, 『朝鮮時代 佛教 法統說의 問題』, 『韓國史論』(서울大學校 人文大學 國史學科, 1988), pp. 281-286.

51 불교계의 법통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설이 있으나, 법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논외로 하였다. 임제법통설은 후에 청허휴정의 문도에 의해 태고법통으로 바뀌게 된다. 태고법통을 기록한 것은 『圓證國師石鐘銘』의 『清虛堂行狀』, 『碧松堂行蹟』, 『芙蓉堂行蹟』, 『敬聖堂行蹟』, 『設禪儀』등이 있는데, 표 11은 청허휴정의 『設禪儀』와 『中國禪宗法圖』, 『韓國禪宗法系圖』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청허휴정 이후의 불교계는 이 태고법통설을 따르고 있으므로 청허휴정 이후의 계단형 僧塔主에 관한 법계는 생략시켰다.

52 『東師列傳』卷2 碧松禪師傳, "...入寂乃十一月初一日辰時也 顔色不變 屈伸如生 茶毘之夜 祥光洞天 薦齋之晨 瑞雲盤室 頂骨一片 舍利黏黏 瑩若眞珠 弟子崇仁 雪峯 圓悟 一眞之徒 鑊石鐘..."

53 『東師列傳』卷2 敬聖大德傳 "...輩收舍利五箇建石鐘安之師..."

54 1640년 태고법통설이 한국불교의 정통설로 확정되고 나옹법통설은 1640년 폐기된다(崔柄憲, 『朝鮮時代 佛教 法統說의 問題』, 『韓國史論』(서울大學校 人文大學 國史學科, 1988), pp. 286-290).

55 탑비 표면에 "西天國佛舍利記 塔中古文"이라는 명문으로 보아, 해체만출시 발견된 것으로 짐작되는 명문을 탑비 표면에 새겨 놓은 것으로 보인다. 비문에 의하면 탑은 萬曆 48년(1620)에 天磨山 奉印寺에 건립되었으며 그 후 乾隆 24년(1759)에 重修立碑되었다(황수영, 『日本 大阪美術館의 李朝舍利塔』, 『황수영전집』3 (혜안, 1998), pp. 275-277).



도 18 奉印寺世尊舍利塔, 1620년, 경북궁

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불교미술에 있어 선종이 가져 온 가장 큰 변화, 즉, 승탑 출현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대승불교의 발전과 더불어 등장하는 선종은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견성을 인가받은 승려를 부처와 다름없이 숭앙하는 것이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종교적 특성은 승려의 탑을 조성함에 있어, 새로운 형태의 미술사적 변용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고려 말 지공, 나옹, 태고에 이르러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승사리에 의한 분사리와, 그로 인한 새로운 탑형의 출현, 그리고 조선시대 선종의 계맥을 잇고자한 승려에 있어서 일어나는 고려시대 현상의 재현, 이것과 더불어 불사리를 분사리함에 있어 보여준 봉인사 세존사리탑과 같은 새로운 승탑형 불탑의 출현은 ‘견성성불’의 선종사상이 조형으로서 도출된 결과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계단형 승탑은 선종사상의 부흥과 그 궤를 같이 하여, ‘견성성불’로 구현된 ‘覺者’에의 숭앙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형물이자, 계단형 승탑주로 하여금 한국 선종의 법계를 잇고자 한 불교도들의 의지가 물리적인 실체로 드러난 상징적인 조형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오늘날 한국선종법계가 고려 말 계단형 승탑주인 나옹과 태고를 조사로 하여 그 법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불교미술사에 있어서 계단형 승탑이 지닌 상징성과 위상을 말해주는 것이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승려의 탑을 조성함에 있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계단의 형식을 지닌 ‘계단형탑’이 특정 시기, 특정 승려에 한해 분사리되어 조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조성 배경과 형태가 상징하는 바를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계단형 승탑의 출현과 재현, 그리고

선불교의 도입이 갖는 연관관계에 주목하여 논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계단형탑’의 도상적 연원을 밝힐 수 있는 『관중창립계단도경』의 텍스트를 인용하여 도상적 해석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계단형 승탑은 ‘단’과 ‘사리탑’의 기능이 합쳐진 양면기능적 조형물인 ‘계단’의 변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승사리의 분사리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탑 출현을 가능케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고려 말 도입된 선사상과, 법계도를 통한 계단형 승탑 주인공의 불교사적 위상을 살펴봄으로써 계단형 승탑은 ‘견성성불’, ‘직지인심’의 종지를 지닌 선사상에서 승탑 역시 불탑과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개념에 의해, 고려 말 지공, 나옹, 태고에 있어, ‘계단형 승탑’이라는 새로운 미술사적 형식의 출현을 설명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보제존자탑과 원증국사탑의 현상을 계단과 비교분석하였고, 그 결과 보제존자탑은 계단에 기원을 둔 계단형 승탑이었으며,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와 기단부의 수치 비교, 탑비의 형태, 사나사의 寺歷, 삼층석탑의 위치문제를 토대로 사나사 원증국사탑 또한 그 원형은 계단의 단을 지닌 ‘계단형 승탑’이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제시하였다.

이후 계단형 승탑이 재현되는 조선시대 사명당 유정의 탑을 중심으로 조성원리, 형태 및 크기를 살펴, 사명당탑 역시 ‘계단형탑’임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 분사리에 의해 조성된 계단형 승탑 주인공의 승명을 한국선종법계 속에서 찾아냄으로써, 당시 시대상황 속에서 ‘계단형탑’이 재현된 원인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계단형’의 기원, 출현과 재현의 고찰을 통해 살펴본 계단형 승탑은 선종사상의 부흥과 그 궤를 같이 하여 ‘見性成佛’로 구현된 ‘覺者’에의 숭앙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형물이자, 계단형 승탑주로 하여금 한국 선종의 법계를 잇고자 한 문도들의 의지가 물리적인 실체로 드러난 상징적인 조형물이라는 사실을 밝혀 불교미술사에 있어 ‘계단형 승탑’의 의의를 재조명하였다.

***주제어(Key Words)**_계단(Buddhist ordination platform), 계단형 승탑(stupa in the shape of the Buddhist ordination platform), 분사리(the distribution Buddha's sarira), 견성성불(attainment of Buddhahood via discovering the Buddhahood in one's nature), 선종법계(the Korean Zen Buddhist tradition)

■ 투고일 2012년 5월 23일 | 심사개시일 2012년 9월 5일 | 심사완료일 2012년 10월 14일 ■

참고문헌

1. 사료·문집

- 『高麗史』卷35
『關中創立戒壇圖經』
『東師列傳』卷2
『牧隱文集』
『大唐西域求法高僧傳』
『文殊舍利菩薩最上乘無生戒經』
『奉恩本末寺誌』
『佛祖宗派之圖』
『三國遺事』
『禪要錄』
『設禪儀』
『拭疣集』卷2
『新增東國輿地勝覽』卷8,
『海東佛祖源流』

2. 단행본

- 경기도박물관, 『京畿道佛蹟資料集』, 경기도박물관, 1999.
勸相老 編, 『韓國寺刹全書』上, 동국대학교출판부, 1978.
金映遂 編, 『金山寺誌』, 亞細亞文化社, 1983.
東國大學校 佛教刊行委員會 韓國佛教全書編纂委員 編, 『韓國佛教全書』6, 동국대학교, 1979.
性徹 譯, 『敦煌本 壇經』, 藏經閣, 1982.
李能和, 『朝鮮佛教通史』下篇, 民族苑, 1918.
李智冠 교감역주, 『歷代高僧碑文』高麗篇4, 伽山佛教文化研究院, 2000.
朝鮮總督府 編, 『朝鮮金石總覽』上·下, 亞細亞文化社, 1978.
退隱敬一 編, 『通度寺誌』, 亞細亞文化社, 1977.
韓國佛教研究院, 『通度寺』, 一志社, 1999.
_____, 『神勒寺』, 一志社, 1997.
許興植, 『高麗로 옮긴 印度의 등불』, 一潮閣, 1997.
_____, 『禪宗의 繼承과 所屬寺院』, 『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1986.

황인규, 『고려말·조선전기 불교계와 고승 연구』, 혜안, 2005.

3. 논문

- 岡教邃, 「朝鮮華藏寺의 梵菜와 印度指空三藏」, 『宗教研究』39, 佛敎社(佛敎), 1927.
- 강우방, 「佛舍利莊嚴論」, 『佛舍利莊嚴』, 國立中央博物館, 1991.
- 功德山人, 「懶翁王師의 菩薩戒牒을 보고」, 『佛敎』5, 佛敎社(佛敎), 1924.
- 高裕燮, 「韓國 塔婆의 研究」, 『高裕燮 全集』1, 通文館, 1992.
- 祁慶富, 정하영 역, 「西僧 指空禪師와 彝族」, 『삼대화상 연구 논문집』Ⅱ, 佛泉, 1999.
- 김상현, 「指空의 影幀과 遺蹟」, 『삼대화상 연구 논문집』Ⅱ, 佛泉, 1999.
- 金煥泰, 「朝鮮 禪家의 法統考」, 『佛敎學報』, 東國大學校 佛敎文化研究院, 1985.
- 김치은, 「지공화상의 교학사상」, 『삼대화상 연구 논문집』Ⅱ, 佛泉, 1999.
- 道業, 「太古普愚의 禪思想과 佛敎史의 位置」, 『太古普愚國師의 生涯와 行蹟』, 中央僧伽 大學校 佛敎史學 研究所, 2002.
- 박창호, 「조선시대 석종형부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李浩官, 「石碑의 발생과 樣式變遷」, 『韓國의 美』15, 중앙일보사, 1981.
- 張忠植, 「韓國 石造戒壇考」, 『佛敎美術』4, 동국대 박물관, 1979.
- 朱浩贊, 「懶翁 慧勤 悟道詩의 一考察」, 『삼대화상연구 논문집』Ⅲ, 佛泉, 2001.
- 소재구, 「부도」, 『북한문화재해설집』I,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 이장한, 「해남 대흥사 석조부도군 고찰」,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李浩官, 「石碑」, 『韓國의 美』15, 중앙일보사, 1981.
- 崔柄憲, 「朝鮮時代 佛敎法統說의 問題」, 『韓國史論』,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國史學科, 1988.
- 한성자, 「무생계법(無生戒法)을 통해 본 지공화상의 계율사상」, 『삼대화상 연구 논문집』Ⅱ, 佛泉, 1999.
- 황수영, 「日本 大阪美術館의 李朝舍利塔」, 『황수영전집』3, 혜안, 1998.
- 황인규, 「無學自超의 興法活動과 檜巖寺」, 『삼대화상 연구 논문집』Ⅱ, 佛泉, 1999.

4. 도록

- 『아름다운 金剛山 : 유리원판사진』, 국립중앙박물관, 1999.
- 『中國禪宗法系圖』, 동화사승가대학, 2002.
- 『韓國禪宗法系圖』, 동화사승가대학, 2002.

국문초록

이 글은 삼국시대 불교전래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주류로서 조성되는 八角圓堂形 僧塔과 달리, 불교사상적 의의가 중요한 戒壇의 형식이 고려 말이라는 특정시기, 승려인 指空, 懶翁, 太古에 있어 分舍利의 원리와 맞물려 ‘戒壇形塔’으로 출현하는 것에 주목하여, 그 조성배경과 형태가 상징하는 바를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계단형 승탑의 出現과 再現, 그리고 禪佛敎의 도입이 갖는 연관관계에 주목하여 논증하였다.

계단의 기원은 『關中創立戒壇圖經』의 텍스트를 인용하여 도상적 해석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계단은 佛舍利塔으로, 또, 수계의를 통한 佛法의 傳承을 상징하는 戒壇으로서의 양면적 상징성을 지닌 조형물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계단은 반드시 方形 壇과 鐘形 塔身을 갖춘 구조여야 한다. 따라서 方形 壇과 石鐘形 塔身을 갖춘 戒壇形 僧塔 또한, 계단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하겠다.

조성배경은 고려 말 도입된 禪思想과, 禪宗法系圖를 통한 계단형 僧塔주의 佛敎史的 位相을 살펴봄으로써, ‘見性成佛’의 선종사상과, ‘直指人心’에 의한 禪脈을 계승한 승려를 佛格으로 숭앙할 수 있다는 사상이 승려인 지공, 나옹, 태고에 있어 分舍利의 원리에 의해 ‘계단형탑’으로 출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계단이 지닌 양면적 상징성을 승려의 탑에 적용시킴으로써 계단형탑 主의 법으로 하여금 한국선종의 法脈을 잇고자 한 門徒들의 조형관이 깃들어진 결과물로서 조성된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신륵사 普濟尊者塔을 계단과 비교분석하였고, 그 결과 보제존자탑은 계단에 기원을 둔 계단형탑이었다는 것과,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와 舍那寺 圓證國師塔의 現狀, 기단부의 수치비교, 塔碑의 형태, 사나사의 寺歷, 삼층석탑의 위치문제를 토대로 사나사 원증국사탑 또한 그 원형은 계단의 단을 지닌 ‘계단형 승탑’이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제시하였다. 이후 계단형 승탑이 재현되는 조선시대 海印寺 四溟堂塔을 중심으로 조성원리, 형태 및 크기를 살펴, 이 역시 고려 말과 같은 맥락으로 재현된 ‘계단형탑’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분사리에 의해 조성된 계단형 僧塔주의 僧名을 韓國禪宗法系 속에서 찾아냄으로써, 당시 시대상황 속에서 ‘계단형탑’이 재현된 원인을 알아보았다.

즉, 계단형 승탑은 선종사상의 부흥과 그 궤를 같이 하여 ‘見性成佛’로 구현된 ‘覺者’에의 숭앙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형물이자, 계단형 승탑 主로 하여금 한국 선종의 법계를 잇고자 한 문도들의 의지가 물리적인 실체로 드러난 상징적인 조형물이라고 하겠다.

Abstract

A Study on Stupas Built in the Shape of an Ordination Platform

-Appearance and Representation of Stupas Built in the Shape of an Ordination Platform -

Yeo, Isook *

This study focuses on the stupas built in the shape of a Buddhist ordination platform that emerged during the late Goryeo Period to replace the octagonal stupas of the earlier period, which had been the main form of such Buddhist monuments in Korea after the Three Kingdoms Period (57 B.C.E - 668). The main discussion guides readers to the origins of the stupa, the symbolism of its shape, the ideology behind Buddhist sariras, and the arrival and development of Zen Buddhism, represented by such eminent monks as Jigong, Naong and Taego.

The stupas of the late Goryeo Period were not ordinary reliquary monumental structures but were rather inspired by the traditional Buddhist ordination platform, which symbolizes the Buddhist Law as preserved through formal ceremonies, as well as sarira pagodas. The stupa also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Buddhist art by adopting a new monumental structure inspired by the traditional ordination platform based on the belief that "an enlightened monk is not different from Buddha", an idea of Zen Buddhism introduced during the late Goryeo Period. In conclusion, stupas with the shape of an ordination platform symbolized the tradition of worshipping those who achieved enlightenment by discovering the Buddhahood in their own nature as well as the determination of Buddhist followers to preserve the Korean Zen Buddhist tradition.

* Researcher, GYEORE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